



김 채 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쌍용양회 회장

## 기술개발로 경제 어려움 극복해야

최근에 와서 세계적으로 기술은 국력의 주요지표가 되고 있다.

기업에 있어서도 기술개발은 단순히 명분이나 홍보가 아닌 당위요 필연이며 기업 미래의 생존을 결정짓는 주요변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은 누적적 증가속성을 갖고 있다. 즉 튼튼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서 하루아침에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술은 또한 복합적 발전속성을 갖는다. 기계기술이 우수하다고 해서 좋은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자기술, 컴퓨터기술, 심지어는 화학기술의 도움없이 좋은 자동차를 생산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부품·소재기술이 발전하지 않고서 기계기술의 발전을 논할 수 없으며 열처리, 도금기술이 향상되지 않고서 선박건조를 자체기술로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기업의 기술개발은 결국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이므로 소비자가 외면하면 구체화되기 어렵다. 좋은 섬유기계를 만들었는데 정작 써야할 기업이 외면하고 선진수준의 VCR을 개발 시장

에 내 놓아도 국내소비자가 외제를 더 선호한다면 결국 그 기술은 사장되거나 훨씬 더딘 성장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기술개발은 범국민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가치 혁신운동 같은 것이다.

'91년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사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이정표를 설정한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81년부터 과기처에서 수행해 오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업무가 만 10년만에 당협회로 이관됨으로써 민간주도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연구소의 수도 '91년 4월에 1,000개를 넘어섬으로서 드디어 이땅에도 연구소 1,000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연구소 1,000개시대 개막이란, 그 숫자가 주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무역수지적자가 100억불에 이르고 또한 중소기업의 도산율이 심각한 경지에 이르는 등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성공가능성도 크지않고, 투자회수기간도 장기여서 모험적일 수 밖에 없는 기술개발에 그것도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취약하다고 지적되어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기술개발 의지의 표출

이라는 점에서 그 함축적 의미는 어두운 우리 경제현실에 한줄기 빛으로 기능하였다.

기업의 기술개발의지가 살아있는 한 우리경제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노력이 더욱 강조되어 기술중심의 경영체제가 확립되고, 투자도 적극 활성화되어 민간주도의 기술개발체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원체제의 효율적 점검을 바탕으로한 효과적인 정책지원 방안 마련을 '92년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산업계의 기술개발에 대한 의견 수렴기능을 강화하고 심층적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건의 등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특정연구개발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의 자금규모확대와 내년도 상한인원이 50%(500여명) 가까이 늘어난 병역특례제도의 지속적 상한인원 및 대상기관 확대, 그리고 연구개발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제도화 추진 등을 중점사업화 할 것이다.

## ◆ 壬申年 各界의 設計를 들어본다 / 신년특집 ◆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연구개발참여자의 인센티브 제고를 위하여 기술개발신상품에 대한 유일한 시장제도인 「IR 52 장영실상」을 더욱 활성화하고 동시상제품을 연중 상설전시(국립과학관)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에 대한 저변확대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또한 우수기술혁신업체를 선정·시상하는 새로운 시상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학·연 협동화센터를 개설, 공공연구기관 연구성과의 기업화를 촉진하고 대학 고급두뇌

의 산업계 활용 및 기업자금의 대학유입을 통한 연구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연구관리 각 단계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 연구관리의 표준화를 유도할 것이며 선진 연구관리기법을 탐색, 국내 적용가능성을 분석 소개하고 해외유관기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 D/B화하고, 해외·유수연구소에 대한 현장시찰을 병행 연구개발의 국제화를 도모할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주요지표 및 현황, 기술개발 애로요인,

실태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 그 결과를 정책수립 및 기술개발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할 것이다.

농부의 노력없이 날씨만 좋아서는 결실이 뒤따르지 않는 것과 같이 기술개발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 산업기술의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盡人事 待天命의 풍조가 우리 산업기술계에도 널리 퍼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